

제목: 가족과 함께 느끼는 위엄

양정윤

시원한 바다와 맑은 공기가 있는 남해로 우리가족은 떠나게 되었다. 나는 장소보다는 우선 여행이라는 말에 한 것 들뜬 기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넓은 바다가 나올 때 마다 나는 저절로 소리를 지를 수 밖에 없었다. 물루랄라 도착한곳은 그곳에 “충무공”이라는 글씨가 나를 먼저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그곳은 남해 관음포 충무공 이순신 유적지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차를 타서 힘들어서 내리자마자 뛰어다니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곳은 내가 마냥 기분 좋게 뛰어다닌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순국한곳이었다. 전에 부모님과 함께 명량을 보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을 읽어봐서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다. 적과 싸우다가 적이 쏜 총에 맞아서도 끝까지 싸우기를 원해 적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정말 나라를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시다. 모든 위인전을 읽을 때마다 항상 느낀 감정은 항상 우리를 나라를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다. 그 위대한분이 위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 우리를 위해 순국하시면서 아무말도 못하게 하고 끝까지 싸우시게 하다니 우리의 존경을 받으실만하신 분이다. 나는 관음포에서 느낄수 있는 느낌은 꼭 바닷가로 우리를 이끄는 느낌을 받았다. 관음포에서 제일 먼저 간곳은 ‘이충무공 전몰유허’에 갔다. 그곳은 이순신장군께서 순국하셔 안치되신 곳이라고 하였다. 잠시라도 그 곳에 이순신장군께서 눈을 감은 곳이여서 더 마음이 더 그곳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돌계단을 오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는 이순신 장군의 유언이 비석에 써있다. 그리고 노량해전의 요약문도 적어있다. 그래서 노량해전이 마지막 전투였다는 것도 알기 쉽게 적어있다. 그리고 여기는 남해 시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만드신 곳이라고 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시니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고 이곳을 만들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족은 하늘로 우뚝 서 있는 나무들을 사이에 두고 걸어가 보니 갔더니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그곳에서 꼭 이순신장군께서 싸우는 장면이 떠올랐다. 정말 그 곳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있는 것 같았다. 파도는 잔잔하고 하늘에 구름도 둥둥 떠오르는 것이 아직도 이순신 장군이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이렇게 잔잔한 바다와 맑은 하늘에서 있는 내 자신은 지금 있게 해주신 이순신 장군께 감사했다. 우리 가족의 즐거운 여행과 함께 나는 이순신 장군님을 잠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난 관음포에 들어서 바다와 비석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나라는 그냥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많은 위인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